



부록 | 모의고사 지문 분석

2024학년도 시즌6 제10차 이감 국어 모의고사 지문 분석을 수록하였습니다.

독서 _____ 90쪽

문학 _____ 98쪽

[4~7] 사회

행동주의를 활용한 광고 전략

✔ 지문 평가

뚜렷한 초점을 갖지 않으면서 관련된 정보들이 나열되고 있는 형태를 취하는데, 그 과정에서 세세하게 개념들을 잘 구분해 가지 않으면 선지들의 함정에 빠지기 매우 쉬운 구성이다. 이는 전형적인 최근 평가원 시험들의 지향점이기도 하니, 불평하지 말고 잘 연습해 두자.

🔑 키워드

사회 - 커뮤니케이션 이론 - 행동주의, 조작적 조건화, 고전적 조건화

인지주의, 행동주의, 학습 이론, 스키너, 조작적 조건화, 보상, 강화, 정적 강화, 부적 강화, 처벌, 파블로프, 고전적 조건화, 무조건 자극(US), 무조건 반응(UR), 조건 자극(CS), 조건 반응(CR), 처벌적 이미지, 선험적 이미지, 스타츠, 장애 효과, 도치 효과, 분기 효과, 그늘 효과, 방해 효과

문단 1 광고 전략으로 활용되는 행동주의

내면에서의 인지 활동에 초점을 맞추는 **인지주의**와 달리, **행동주의**는 자극에 대한 반응으로 나타나는 **표면적** 행동에 초점을 맞추는 학습 이론이다. **학습 이론**은 광고 전략으로 활용되곤 하는데, 적극적으로 지 않은 이들에게 짧은 노출을 반복하여 효과를 얻어야 하므로 인지주의보다 행동주의가 더 적합하다.

▶ **맥락 짚기** '인지주의, 행동주의'는 '학습 이론'에 속한다. 같은 범주의 개념들이 나열되었으므로 구분하여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행동주의'가 글의 초점으로 주어졌으므로, 행동주의가 인지주의와 어떤 점에서 다른지, '행동주의'만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인식하는 것이 관건이다.

인지주의	행동주의
내면에서의 인지 활동	표면적 행동

▶ 이렇듯 '행동주의'는 '표면'에 드러나는 행동에 관심을 둔다는 점에서 '인지주의'와 구분된다. 그렇기 때문에 '광고 전략'으로 활용하기에도 더 적합하다. 광고라는 자극에 대한 반응을 '표면적 행동'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문단 2 조작적 조건화

1) 행동주의 광고 전략으로 **스키너**에 의해 정립된 학습 유형인 **조작적 조건화**가 활용될 수 있다. 조작적 조건화에 따르면 긍정적 결과를 낳은 행동을 앞으로 계속하도록 하는 학습이 이루어진다. 이때의 긍정적 결과인 **보상**에 의해 그 행동의 빈도가 증가하는 것을 **강화**라 한다.

▶ '조작적 조건화'에 대한 설명이다. 특정 행동에 대해 '긍정적 결과'를 제공한다면, 해당 행동의 빈도가 증가한다는 얘기다.

긍정적 결과 → 보상 ⇨ 행동의 빈도 ↑ → 강화

2) 강화는 상장 수여처럼 특정 행동에 대한 보상으로 가치 있는 것을 제공할 때 이루어지는 **정적 강화**와 청소 면제처럼 특정 행동 시에 이미 존재하던 불쾌한 조건이나 부담을 제거해 줄 때 이루어지는

부적 강화로 나뉜다. 특정 식품을 먹으면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광고는 정적 강화를, 특정 두통약을 먹어야 빠르게 두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광고는 부적 강화를 이용한 것이다.

▶ **맥락 짚기** '강화'의 유형을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즉 이 둘이 어떻게 구분되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둘은 '조작적 조건화'의 결과로서 해당 행동의 빈도가 높아진다는 점에서는 같지만, 제공하는 '보상'의 유형이 다르다.

정적 강화	부적 강화
보상: 가치 있는 것을 제공	보상: 이미 존재하던 불쾌한 조건, 부담 제거

3) 강화 외에, **처벌**은 어떤 행동에 따라 부정적 결과가 나타나면 그 행동의 빈도가 감소하는 것을 말한다. 흡연을 계속하면 건강이 나빠진다는 공익 광고는 처벌을 전략으로 활용한 사례이다.

▶ **맥락 짚기** '처벌'은 강화 → 정적 강화, 부적 강화와 구분되는 개념이다. '강화'는 그로 인해 특정 행동의 빈도가 증가한다면, 반대로 '처벌'은 그로 인해 특정 행동의 빈도가 감소한다.

강화	처벌
긍정적 결과를 낳는 행동 ⇨ 행동의 빈도 ↑	부정적 결과를 낳는 행동 ⇨ 행동의 빈도 ↓

문단 3 고전적 조건화

1) 그런데 기업이나 브랜드의 이미지를 개선하려는 광고의 경우 조작적 조건화로 접근하기 어려워서, 행동주의의 또 다른 학습 유형이자 **파블로프**에 의해 정립된 **고전적 조건화**가 활용된다. 이에 따르면 음식을 보는 것과 같은 **무조건 자극(US)**은 침을 흘리는 것과 같은 생득적인 반응인 **무조건 반응(UR)**을 일으킨다.

▶ 특정 행동[→ 물품 구매 등]을 유도하는 데에는 '조작적 조건화'가 유용하지만, '이미지의 개선'에는 딱히 유용하지 않다. 이는 어떤 행동의 빈도를 늘려거나 줄임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는 바가 아니기 때문이다.

▶ 이와 관련해서는 '고전적 조건화'가 활용된다. 이에 따르면 'US'가 주어지면 'UR'이 일어난다. 주어진 예시를 잘 활용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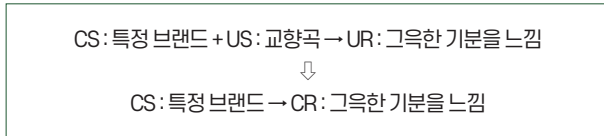
US: 음식을 쳐다봄 ⇨ UR: 침을 흘림

2) 그런데 종소리와 같은 중립적 성격의 **조건 자극(CS)**을 노출하고 곧바로 US를 노출하는 일을 반복하면, 나중에 CS만 노출시켜도 US만 제시될 때처럼 침을 흘리는 반응인 **조건 반응(CR)**이 나타난다. 이 점을 활용하여 어떤 브랜드에 **그윽한** 이미지를 형성하기 위해 그윽한 기분이 드는 교향곡을 브랜드 광고에서 반복 노출하면, 사람들이 해당 브랜드를 대할 때마다 그윽한 기분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 고전적 조건화에서는 US에 대해 UR이 일어나는데, US에 앞서 CS를 제공하기를 반복하면, 나중에는 CS만 주어져도 UR이 나타난다. 즉 US가 없음에도 그에 대한 생득적 반응인 UR이 저절로 일어나는 것이다. 이때의 반응을 가리켜 CR이라고 한다.

CS: 종소리 + US: 음식을 쳐다봄 → UR: 침을 흘림
↓
CS: 종소리 → CR: 침을 흘림

※ 주목 이러한 '고전적 조건화'를 전략으로 활용한 광고의 구체적인 예시를 들고 있다. 앞선 설명과 대응하여, 구체적으로 무엇이 CS, US, CR에 각각 대응되는지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 '그윽한 기분이 드는 교향곡'이란 교향곡을 들으면[→ US] 생득적 반응으로 그윽한 기분이 느껴짐[→ UR]을 뜻한다. 그에 앞서 특정 브랜드[→ CS]를 반복적으로 제시함으로써, 나중에는 CS만 주어져도 CR이 떠오르도록, 즉 '특정 브랜드'에게 '그윽한 이미지'를 부여하게 만드는 것이다.

문단 4 광고를 통해 형성되는 차별적 이미지와 선호적 이미지

1) 이렇게 광고를 통해 형성되는 이미지는 특정 대상만이 가지는 고유한 '**차별적 이미지**'와 여러 차별적 이미지들이 함께 이루어 내는 긍정적 이미지인 '**선호적 이미지**'로 구분된다.

◀ 맥락 짚기 고전적 조건화를 활용한 광고에 의해 형성되는 이미지를 둘로 나눠 설명하고 있다. 먼저 광고되는 대상의 고유한 '차별적 이미지'가 형성되고, 이러한 각각의 차별적 이미지들이 모여 하나의 '긍정적' 이미지인 '선호적 이미지'가 형성된다.

차별적 이미지	선호적 이미지
특정 대상만이 가지는 고유한 이미지	여러 차별적 이미지들이 모여 이루는 긍정적 이미지

2) **스타츠**의 실험적 연구에 따르면 개별 광고를 통해 형성된 여러 차별적 이미지들이 모두 긍정적인 것일 때에 선호가 점차 커지는 효과가 나타난다. 어떤 브랜드에 대한 개별적 광고들로 각각 좋은 이미지가 형성되면 그것들의 축적에 의해 선호가 더욱 커진 종합적 이미지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 결국 한 브랜드에 대한 '선호적 이미지'가 형성되려면 그 브랜드의 개별 광고들이 각각 '긍정적' 반응을 일으키는 '차별적 이미지'를 형성해야 한다. 여러 긍정적 이미지[→ 차별적 이미지]들이 모여 하나의 긍정적 이미지[→ 선호적 이미지]가 형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문단 5 장에 효과의 유형

1) 고전적 조건화에 의한 이미지 형성이 적절하게 이루어지려면 **장에 효과**들을 피해야 한다. 장에 효과의 하나로 음악을 먼저 들려주고 브랜드 로고를 나중에 노출하는 경우처럼 자극 제시의 순서를 바꿔서 CR이 잘 생기지 않는 **도치 효과**가 있다. **분기 효과**는 상반된 이미지의 음악과 모델이 함께 사용되는 경우처럼 여러 개의 US들 간의 수렴성이 약해서 통일화된 CR이 제대로 형성되지 못하는 경우이다.

▶ '장에 효과'에 대한 설명이다. 이는 고전적 조건화를 활용한 광고들이 '차별적 이미지, 나아가 '선호적 이미지'를 형성하기 위해 피해야 하는 것을 뜻한다 [문단4]. '장에 효과'의 여러 유형들을 나열하고 있다. 정보량이 상당히 쏠려 있는데, 침착하게 각각을 구분하여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 먼저 '도치 효과'에 대한 설명이다. '고전적 조건화'가 이루어지려면 US가 아닌, CS가 먼저 주어져야 한다. 그 순서가 뒤바뀌는 '도치'가 일어나면, CR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는다.

도치 효과
US 먼저, CS 나중

▶ '분기 효과'는 하나의 광고에 여러 US들이 사용되는 경우다. 이들이 '일관된 이미지', 즉 일관된 UR을 일으키는 것이라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상반된 이미지'를 가질 때 문제가 된다.

분기 효과
상반된 이미지의 여러 US들을 사용

2) 그 외에 그늘 효과와 방해 효과 등이 있다. **그늘 효과**는 의도적으로 제시한 CS 외에 불필요하게 더 선명한 자극이 함께 제시되어 그것에 주목하게 됨으로써 조건화의 효과를 가리는 경우이며, **방해 효과**는 이미 사람들에게 특정 한 이미지로 각인된 US나 다른 브랜드를 연상시키는 US를 사용함에 따라 하나의 US에서 의도했던 CR이 형성되지 않는 경우이다.

▶ '그늘 효과'는 CS가 아닌 다른 자극에 사람들이 주목하게 되어서, CS와 CR 간의 관계가 잘 성립하지 않게 되는 경우다.

그늘 효과
더 선명한 자극이 함께 제시

▶ '방해 효과'의 경우 의식적으로 '분기 효과'와 구분하여 이해해야 한다. 비슷해 보이지만 다르기 때문이다. 1)에서 살펴본 '분기 효과'는 여러 개의 US를 사용할 때의 장에 효과라면, '방해 효과'는 하나의 US에 의해 나타나는 것임을 파악해야 한다.

방해 효과
이미 특정 이미지로 각인된, 혹은 다른 브랜드를 연상시키는 하나의 US를 사용

<보기>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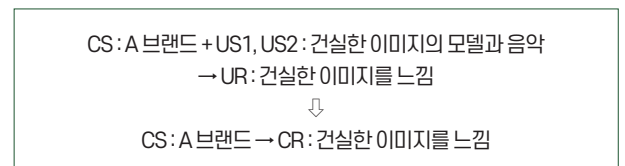
<보기> 문단

1) A 브랜드의 이미지를 건설하고 전문적인 이미지로 개선하고자, 두 시기로 나누어 각 시기별로 광고 X와 광고 Y를 내보냈다. 광고 X와 Y는 모두 **고전적 조건화**를 활용한 것이다. **광고 X**에서는 눈에 잘 띄는 거대한 건물을 배경으로 브랜드 로고에 이어 건설한 이미지의 모델과 건설한 이미지를 고취하는 음악을 제시하였다.

◀ 맥락 짚기 '브랜드의 이미지'를 개선하려는 상황이므로 '고전적 조건화'를 활용해야 한다. 관련하여 문단3, 4, 5의 내용들을 주로 참고할 필요가 있다.

▶ 광고 X는 A 브랜드의 '건설한 이미지'를 형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A 브랜드 로고[→ CS]에, 건설한 이미지의 모델[→ US1]과 건설한 이미지를 고취하는 음악[→ US2]를 이어서 노출하였다[문단3].

※ 주목 만약 US1, US2가 상반된 이미지를 갖는다면 '분기 효과'가 일어났겠지만, 그러한 경우는 아니다. 또한 US를 CS보다 먼저 제시했다면 '도치 효과'가 일어났겠지만, 그러한 경우도 아니다[문단5-1].



∴ 다만 ‘눈에 잘 띄는 거대한 건물’을 배경으로 했다는 점에서 ‘그늘 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문단5-2]].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제시된 자극인 A 브랜드[→ CS] 대신에 건물에 더 주목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③번 선지는 적절하다.

2) 다음 시기에 내보낸 **광고 Y**에서는 다소 독특한 성향을 지녔다고 널리 알려져 있으면서도 전문적인 이미지도 지닌 유명인을 등장시켰다.

▶ 반면 광고 Y는 독특한 성향과 ‘전문적인 이미지’를 지닌 유명인을 US로 활용하였다. 이는 맥락상 CR로 ‘전문적인 이미지’가 느껴지기를 바란 것이겠다.

CS: A 브랜드 + US3: 독특한 이미지, 전문적인 이미지를 모두 가진 유명인 → UR: 전문적인 이미지를 느낌



CS: A 브랜드 → CR: 전문적인 이미지를 느낌

▶ 이 경우에는 무엇보다도 ‘방해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하나의 US가 ‘독특한 이미지’로 이미 각인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그로 인해 의도했던 CR이 형성되지 않을 수 있는 것이다[문단5-2]].

[8~11] 기술

액체 추진제의 연소 특성

지문 평가

로켓이 추력을 얻기 위한 추진제의 원리와 그 효율을 ‘O/F 비에 따른 연소 특성’과 관련하여 설명하는 전형적인 기술 지문이다. 내용은 평이하지만 연결되는 개념들의 관계를 잘 파악할 필요가 있다.

키워드

기술 - 화학 공학 - 추진제

추력, 연소, 산화제, 추진제, 액체 추진제, 케로신, 탄화수소 계열의 물질, 산소, 분사, 분무화, 기화, 완전 연소, 이산화 탄소, O/F 비, 화학량론적 O/F 비, 일산화 탄소, 불완전 연소, 비추력, 유효 배기 속도, 최적 O/F 비

문단 1 로켓의 추진제

1) 로켓을 운동 방향으로 밀어붙이는 힘인 **추력**이 지구의 중력을 극복할 정도로 크면, 로켓이 지구를 벗어나 우주로 나갈 수 있다. 로켓은 연소실에서 연료가 산소와 결합하여 **연소**할 때에 생성되는 배기가스를 노즐을 통해 로켓 외부로 방출함으로써, 그 방출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추력을 얻는다. 그런데 우주에는 산소가 없으므로 로켓은 **산화제**를 이용하여 산소를 공급한다.

▶ 로켓은 연료를 산소와 결합시켜[→ 연소시켜] 얻은 ‘배기가스’를 방출해 ‘추력’을 얻는다. 다만 우주에서는 산소를 얻기 어려우므로 그 대신 ‘산화제’를 활용한다. 즉 산화제는 ‘산소를 공급하여’ 로켓이 추력을 얻도록 하는 물질로 이해할 수 있다.

2) 연료와 산화제를 합쳐서 **추진제**라 하며, 액체로 이루어진 **액체 추진제**에서 연료로는 **케로신**처럼 탄소와 수소로 이루어진 **탄화수소 계열의 물질**이, 산화제로는 액체 상태의 **산소**가 주로 사용된다.

▶ 맥락 짚기 글의 화제가 좁혀지는 대목이다. 추진제 중에서도 ‘액체 추진제’로 글의 내용을 한정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세부적인 원리가 글의 초점이 될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문단 2 O/F 비에 따른 연료의 연소 특성

1) 보통 액체 추진제를 사용할 경우, 로켓의 연소실 외부에서 서로 분리되어 있던 연료와 산화제가 강한 압력에 의해 연소실 내부로 **분사**되고, 각각 작은 액체 알갱이가 되는 **분무화**와 기체가 되는 **기화**를 순차적으로 거친 뒤 결합하여 연소를 일으킨다.

▶ 맥락 짚기 ‘액체 추진제’를 활용했을 때 연소가 일어나는 과정을 대략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과정이 주어졌으므로 각 단계를 순차적으로 파악하여 정리할 수 있도록 하자.

연소실 내부로 연료와 산화제 분사[→ 분리되어 있던 연료와 산화제 가 섞임] ⇒ 분무화 ⇒ 기화 ⇒ 연소

2) 산소의 양이 충분하여 연료가 완전히 산화되며 타는 것을 **완전 연소**라 한다. 탄화수소 계열의 물질을 연료로 사용하는 액체 추진제의 경우, 완전 연소가 일어나면 **이산화 탄소**가 배기가스로 생성된다.

➡ 연료의 양에 비해 산소의 양이 충분하지는 '산화제'에 달린 문제겠다[문단 1-1]. 산소의 양이 충분해야만 연료가 남김없이 산소와 결합할 수 있고 → 산화 되고, 이를 가리켜 '완전 연소'라 한다. 이때의 배기가스가 '이산화 탄소'라는 세부 정보도 챙겨 두자.

🔴 참고 한 단계 더 깊게 사고하자면, 탄화수소는 탄소와 수소로 이루어져 있고, 연소는 산소와의 결합이라고 했다[문단1-1]. 따라서 완전히 산화되면 탄소는 최대 개수의 산소[→ 2개]와 결합하는데, 이렇게 생성되는 배기가스가 '이산화 탄소'인 것이다.

3) 연료와 산화제가 혼합될 때, 산화제의 질량을 연료의 질량으로 나눈 값을 '**O/F 비**'라고 하며, 완전 연소가 가장 원활하게 일어나는 O/F 비를 '**화학량론적 O/F 비**'라 한다.

➡ 산화제는 연료에 산소를 공급한다[문단1-1]. 따라서 산화제의 비율이 연료 대비 높을수록 '연료가 완전히 산화'되기 쉽다. 이를 O/F 비로 표현한다. 즉 '산화제의 질량'이 충분한 경우의 O/F 비를 가리켜 '화학량론적 O/F 비'라 하는 것이다.

🔴 맥락 짚기 O/F 비를 구하는 수식이 주어졌다. 이렇게 수식이 주어지는 경우에는, 이를 최대한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실제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유용하고, 이 수식 자체에도 많은 정보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가령 이를 통해 O/F 비는 '산화제의 질량'에 비례하고, '연료의 질량'에는 반비례함을 알 수 있다.

$$O/F \text{ 비} = \frac{\text{산화제의 질량}}{\text{연료의 질량}}$$

4) 케로신이 연료, 액체 산소가 산화제일 때의 화학량론적 O/F 비는 3.48이다.

➡ 챙기고 넘어가자.

5) O/F 비가 화학량론적 O/F 비보다 작을수록 **일산화 탄소**가 배기가스로 생성되는 **불완전 연소**가 일어나기 쉬워진다. 그만큼 완전 연소가 덜 일어나면서 배기가스에서 일산화 탄소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는 것이다.

➡ O/F 비가 '화학량론적 O/F 비'보다 작다면, 이는 완전 연소가 가장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함을, 즉 '산소'가 충분하지 않다는 뜻이 된다[→ 분자인 '산화제의 질량'이 부족하다는 뜻이다].

🔴 주목 이 경우에는 '불완전 연소'가 일어나고, 배기가스로 '일산화 탄소'도 방출된다. 헛갈리지 말자. 일산화 탄소만'이 아니라, 일산화 탄소'도' 방출되는 것이다. '완전 연소'와 한 쌍을 이루는 개념이니[문단2-2], 의식적으로 구분하여 정리하자.

완전 연소	불완전 연소
- 배기가스 : 이산화 탄소 - O/F 비 = 화학량론적 O/F 비	- 배기가스 : 이산화 탄소 + 일산화 탄소 - O/F 비 < 화학량론적 O/F 비
	O/F 비 ↓ ⇒ 일산화 탄소의 비중 ↑

문단 3 비추력과 유효 배기 속도

1) O/F 비가 화학량론적 O/F 비에 가까울수록 연소를 통해 발생하는 에너지가 크며 화학량론적 O/F 비와 같을 때에 최대가 된다. 그런데 완전 연소가 가장 원활하게 일어날 때에, 추진제의 효율을 나타내는 지표인 '**비(比)추력**'이 최대인 것은 아니다.

🔴 맥락 짚기 논의의 초점이 '화학량론적 O/F 비', 즉 완전 연소 여부에서 '비추력'으로 옮겨지고 있다. 연소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에너지는 '화학량론적

O/F 비'에서 최대이지만, 효율이 최대가 되지는 않는 것이다. 즉 '발생하는 에너지가 최대인 지점'과 '추진제의 효율이 최대인 지점'이 별개임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발생하는 에너지가 최대인 지점 ≠ 추진제의 효율이 최대인 지점

2) **비추력**은 단위 시간당 단위 질량의 추진제를 연소시켰을 때에 발생하는 추력의 크기로, 배기가스의 유효 배기 속도를 중력 가속도 (= 물체가 운동할 때 중력의 작용으로 생기는 가속도로, 변하지 않는 일정한 값)로 나눈 값과 동일하다. 배기가스의 **유효 배기 속도**는 배기가스를 이루는 개별 분자들이 로켓 외부로 방출되면서 노즐의 출구를 지날 때의 평균 속도이다.

🔴 맥락 짚기 '비추력'에 대한 설명이다. 마찬가지로 수식의 형태로 주어졌으니 정리해 두자. 즉 비추력은 '유효 배기 속도'에 비례하고, 중력 가속도에 반비례한다.

$$\text{비추력} = \frac{\text{유효 배기 속도}}{\text{중력 가속도}}$$

🔴 주목 어휘 풀이를 참고할 때 '중력 가속도'는 일정한 값이다. 즉 이는 변하지 않는 값인 '상수'에 해당한다. 우리 시험에서는 '상수'와 '변수'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 상수는 어차피 고정된 값이니 크게 의식할 필요가 없고, 변수에만 집중하면 되기 때문이다. 즉 여기서는 '유효 배기 속도'에만 주목하면 되는 것이다.

유효 배기 속도 ↑ ⇒ 비추력 ↑

문단 4 O/F 비와 유효 배기 속도

1) 배기가스의 유효 배기 속도는 추진제의 연소를 통해 발생하는 에너지가 클수록, 배기가스 분자들의 질량이 작을수록 크다.

➡ '추진제의 효율이 최대인 지점', 즉 '비추력이 최대인 지점'은 '유효 배기 속도'가 최대인 지점에 해당한다[문단3-2].

🔴 맥락 짚기 관련된 개념들 간의 관계가 주어졌으니 정리하자. 개념들 간의 관계는 항상 이런 형태로 정리해 가면서 읽는 것이 좋다.

연소를 통해 발생하는 에너지 ↑, 배기가스 분자 질량 ↓
⇒ 유효 배기 속도 ↑ ⇒ 비추력 ↑

🔴 주목 그런데 '연소를 통해 발생하는 에너지'는 '화학량론적 O/F 비'에서 최대였다[문단3-1]. 즉 배기가스인 '이산화 탄소 분자'나 '일산화 탄소 분자'의 '질량'에 의해 '유효 배기 속도'가 최대인 지점이 정해지는 것이다.

2) 추진제의 완전 연소는 에너지가 최대라는 점에서는 배기가스의 유효 배기 속도를 증가시키는 요인이지만, 배기가스에서 이산화 탄소의 비중이 크다는 점에서 유효 배기 속도를 감소시키는 요인이다. 이산화 탄소는 일산화 탄소에 비해 분자의 질량이 크기 때문이다.

➡ '완전 연소'로 발생하는 에너지는 최대이지만[→ 유효 배기 속도를 높이는 요인], 생성되는 배기가스가 이산화 탄소[→ 유효 배기 속도를 낮추는 요인]라는 점에서[문단2-2], '유효 배기 속도'가 최대일 수 없다.

🔴 주목 즉 '배기가스 분자 질량'의 측면에서는, 오히려 불완전 연소로 '일산화 탄소'의 비중이 높아질 때 '유효 배기 속도'를 높일 수 있는 것이다.

3) 그래서 에너지의 크기와 배기가스를 이루는 분자의 질량을 고려했을 때에 비추력이 최대가 되는 O/F 비인 '**최적 O/F 비**'는 화학량론

적 O/F 비보다 작으며, 케로신과 액체 산소의 경우 그 값이 2.77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 따라서 '화학량론적 O/F 비'보다 낮은 비로 산화제와 연료를 혼합해야 '일산화 탄소'가 어느 정도 생성되고, 그 지점에서 비추력이 최대가 된다[→ 추진제의 효율이 최대가 된다.]

<케로신이 연료, 액체 산소가 산화제인 경우>

- O/F 비 = 3.48 : 화학량론적 O/F 비
완전 연소[→ 이산화 탄소]
발생하는 에너지 최대 O, 비추력 최대 ×
- O/F 비 = 2.77 : 최적 O/F 비
완전 연소 + 불완전 연소[→ 이산화 탄소 + 일산화 탄소]
발생하는 에너지 최대 ×, 비추력 최대 O

<보기> 분석

<보기> 문단

1) 탄화수소 계열의 물질을 연료로, 액체 산소를 산화제로 사용한 두 종류의 액체 추진제 X와 Y를 대상으로, O/F 비를 달리하면서 이에 따른 화염 온도와 유효 배기 속도를 측정하는 '실험'을 진행하였다.

Ⓞ 맥락 읽기 지문에서 주어진 '탄소와 수소로 이루어진 탄화수소의 O/F 비에 따른 연소 특성'을 추진제 X, Y에 적용시킬 수 있어야 한다. '유효 배기 속도'는 문단3, 4를 참고하되, 새로 나온 개념인 '화염 온도'는 무엇과 연관된 것인지 살펴봐야겠다.

완전 연소	불완전 연소
• 배기가스 : 이산화 탄소 • O/F 비 = 화학량론적 O/F 비	• 배기가스 : 이산화 탄소 + 일산화 탄소 • O/F 비 < 화학량론적 O/F 비
	O/F 비 ↓ ⇒ 일산화 탄소의 비중 ↑

2) 실험 결과, 화염 온도가 가장 높을 때의 O/F 비는 X의 경우에 3.2, Y의 경우에 3.7이었다. 그런데 유효 배기 속도가 최대일 때의 O/F 비는 2.7과 3.3인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각각 X와 Y 중 어느 것의 값인지가 확인되지 않았다. 단, 화염 온도는 추진제가 연소할 때의 온도로, 연소를 통해 발생하는 에너지의 크기에 비례한다.

➡ '화염 온도'가 높을수록 연소를 통해 발생하는 에너지가 높다. 즉 화염 온도가 최대일 때의 O/F 비는 연소를 통해 발생하는 에너지가 최대인 '화학량론적 O/F 비'가 되겠다.

화염 온도 ↑ ⇒ 연소를 통해 발생하는 에너지의 크기 ↑
⇒ 유효 배기 속도 ↑ ⇒ 비추력 ↑

➡ 다만 '화학량론적 O/F 비'에서 유효 배기 속도가 최대인 것은 아니었다[문단 3-1]. '유효 배기 속도'는 연소를 통해 발생하는 에너지의 크기뿐 아니라, 배기 가스 분자들의 질량에도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문단 4-1].

연소를 통해 발생하는 에너지 ↑, 배기가스 분자 질량 ↓
⇒ 유효 배기 속도 ↑ ⇒ 비추력 ↑

※ 주목 탄화수소를 연료로 사용할 때 비추력이 최대[→ 유효 배기 속도가 최대]인 '최적 O/F 비'는 화학량론적 O/F 비보다 작으므로[문단 4-3], X의 최적 O/F 비가 3.3일 수는 없다. 즉 X, Y의 O/F 비에 따른 연소 특성은 다음과 같다.

O/F 비	추진제 X	추진제 Y
화학량론적 O/F 비	3.2	3.7
완전 연소[→ 이산화 탄소] 발생하는 에너지 최대 O, 비추력 최대 ×		
최적 O/F 비	2.7	3.3
완전 연소 + 불완전 연소[→ 이산화 탄소 + 일산화 탄소] 발생하는 에너지 최대 ×, 비추력 최대 O		

∴ 연소를 통해 발생하는 에너지는 '화염 온도가 가장 높을 때' 최대가 된다. 즉 추진제 X는 화학량론적 O/F 비인 3.2에서, 추진제 Y는 화학량론적 O/F 비인 3.7에서 최대이다. 둘 모두 O/F 비가 3보다 커야 최대의 에너지를 얻는 것이다. 따라서 ㉓번 선택지는 적절하지 않다.

이 감

지행에 관한 논쟁과 조선의 효행 포상제

지문 평가

정보량도 적은 편이고 글의 흐름도 쉬운, 평이한 글이다. (가)에서 주어진 '주자'와 '왕수인' 간의 논쟁을 이해하고, 이를 (나)의 '효행 장려책'이라는 구체적인 정책과 연결하여 이해하는 것이 관건이다. 특히 왕수인의 관점에서 효행 장려책에 대해 왜 비판하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키워드

(가) 인문 - 동양 철학 - 선지후행, 지행합일

주희, 격물, 치지, 지행, 선지후행, 왕수인, 지행합일, 만물의 이치, 마음, 양지

(나) 인문 - 조선사 - 효행 포상제

유교 윤리, 효, 사회적 관행, 효행 포상제, 정문, 복호, 상직, 효령제, 추천, 시모형 효행, 희생형 효행, 양명학, 마음의 자율성

(가) 문단 1 주희의 격물치지와 선지후행

- 1) 주자학을 집대성한 **주희**는 『대학』에 제시된 조목들 중 **격물(格物)**은 만물에 나아가 이치를 깊이 탐구하는 것이고, **치지(致知)**는 앎을 폭넓게 하는 것이라 보았다.

➡ 주희는 '격물'과 '치지'는 모두 '앎'을 중시한다는 점에서 일치하는 자세라고 보았다. 주희는 '격물, 치지'를 만물에 갇힌 이치를 탐구하여 앎을 폭넓게 하는 자세로 이해했다.

- 2) 그는 격물치지를 강조하면서 **지행(知行)**, 즉 앎과 실천은 서로의 조건이 되는 것으로서 어느 한쪽에 치우쳐서는 안 되지만, 굳이 선후를 논하자면 앎이 먼저이고 경중을 논하자면 실천이 중하다고 말했다. 이는 사태에 대한 인식이나 옳고 그름에 대한 이해가 먼저 있어야 실천할 수 있다는 **선지후행(先知後行)**의 견해이다.

➡ 주희는 '격물치지', 즉 앎의 자세를 강조했는데, 더 나아가 '지행', 즉 앎과 실천이 모두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선후와 경중에 있어서는 '지'와 '행'을 구분했다. '선지후행'은 앎이 실천보다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과 실천이 앎보다 더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지행의 선후	지행의 경중
앎 ⇔ 실천	앎 < 실천

(가) 문단 2 왕수인의 지행합일

- 1) 실천에 무기력하다며 주자학에 반론을 제기한 **왕수인**은 앎과 실천은 하나일 수밖에 없다는 **지행합일(知行合一)**의 태도를 강조했다. 왕수인에 따르면 먹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음식인 줄 알고 음식 맛이 좋은지는 반드시 입에 넣은 뒤에야 아는 것처럼, **지행은 함께 가는 것이다.**

Ⓢ 맥락 짚기 글의 초점이 주어지는 대목이다. '지행'에 대해 '주희'와 '왕수인'의 관점을 비교하는 것이 관건이다.

➡ 주희는 '지행'을 구분하여 선후와 경중을 달리하는 '선지후행'을 주장했다. 반면 왕수인은 '지행'을 구분하지 않고, 하나라고 보았다. 즉 앎과 실천은 서로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일어나는 것으로 설명했다. 따라서 앎이 선행되

어야 한다고 본 '주자학'은 실천을 잘 이끌어 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실천을 중시함에도, 실천이 앎에 후행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주희	왕수인
선지후행	지행합일
앎 ≠ 실천	앎 = 실천

- 2) 그것이 먹을 수 있는 것인지를 알아야만[→ 앎] 먹을 수 있다는[→ 실천] 주자학적 관점에서의 문제 제기가 있었으나, 왕수인은 먹고자 하는 뜻이 발동할 때 배워서 아는 것이 선행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지행의 본체란 선후의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님을** 강조한 것이다.

➡ 새로운 내용은 아니다. 왕수인은 애초에 앎과 실천 사이에 '선후'가 성립할 필요가 없다고 보았다는 얘기다. 왕수인은 앎과 실천이 함께 이루어진다고 보았으므로 당연한 반박이겠다.

(가) 문단 3 만물의 이치에 대한 관점

- 1) 이렇듯 왕수인이 앎에 대해 주희와 다른 입장을 보인 것은 **만물의 이치**에 대한 관점 차이에 기인한다. 왕수인은 주자학에서 말하듯 만물의 이치가 개별 사물에 내재해 있다고 보지 않고, **마음이 곧 이치**라고 보았다. 사물이 변화하는 온갖 모습은 마음에서 비로소 생생하게 나타나므로 마음을 벗어나서는 사물이 존재 의미를 잃으며, 사물의 이치도 개별적인 인간의 마음속에서만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 앎에 대한 입장은 '만물의 이치'에 대한 관점으로부터 비롯된다. '주자학'에서는 만물의 이치가 개별 사물에 내재해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앎은 '만물에 나아가' 이치를 탐구함으로써[→ 격물] 얻을 수 있는, 인간의 마음 밖에서 얻는 것이다.

Ⓢ 주목 반면 '왕수인'은 인간의 마음이 곧 이치이기 때문에, 마음속에서 만물의 이치를 찾을 수 있다고 보았다. 즉 앎이란 만물에 나아가 탐구함으로써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 찾는 것이다. 이 둘의 관점이 어떻게 구분되는지 의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주희	왕수인
만물의 이치	개별 사물에 내재함	인간의 마음에 내재함
앎	개별 사물에 나아가야 찾을 수 있음	인간의 마음속에서 찾을 수 있음

- 2) 그는 시비와 선악을 판단하여 도덕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인 **양지(良知)**가 인간의 마음에 선천적으로 갖추어져 있다고 보았다.

➡ 왕수인은 인간의 마음에 갇힌 '앎'을 '양지'라 하였다. 이렇듯 인간의 마음에는 앎과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 모두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앎과 실천을 하나라고 본 것이다.

- 3) 예컨대 효에 대해 배우지 않고도 부모를 보면 저절로 우리나라와 할 수 있다는 것이다.

Ⓢ 맥락 짚기 왕수인의 관점에서 앎과 실천이 하나임을 보여 주기 위한 구체적인 예시이다. 각각이 무엇에 대응되는지를 잘 인식하여 파악할 수 있도록 하자.

- 효에 대해 배우지 않고도: 앎이 선행되지 않아도
 - 부모를 보면 저절로 우리나라와 효를 행할 수 있다: 실천할 수 있다
- ⇒ 앎과 실천은 선후 관계에 있지 않다.

(가) 문단 4 왕수인의 격물치지

1) 왕수인에 따르면 사물에 나아가 이치를 궁구하는 주자학적 태도는 내 마음을 가지고 사물에 있는 이치를 찾는 것으로, 마음과 이치를 둘로 나누는 것이다.

▶ 주자학은 마음과 이치가 분리되어 있다고 본다. '마음'은 인간에 내재해 있는데, '이치'는 개별 사물에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2) 이는 마치 눈앞의 부모한테서 효의 이치를 구하는 것과 흡사하다. 왕수인은 만약 효의 이치가 부모의 몸에 존재하는 것이라면 부모가 돌아가신 후에 효의 이치도 사라지는 모순에 빠지게 된다고 말했다.

◀▶ 맥락 읽기 앞선 예시를 그대로 끌고 오자[문단3-3]. '주자학적 태도'에 따르면, 효의 '이치'는 개별 사물에 내재해 있으므로, 나의 마음이 아닌 그 사물로 나아가 그것을 구해야 한다. 그렇다면 부모가 돌아가신 후라면, 더 이상 부모에게 나아갈 수가 없으므로, 효의 이치를 구할 수 없게 된다. 우리의 상식과 충돌하는 모순이 발생하는 것이다.

눈앞의 부모한테서 효의 이치를 구하는 것
: 사물에 나아가 이치를 찾는 것
⇒ 부모가 돌아가신 후에는 효의 이치를 찾을 수 없다는 모순 발생

3) 그는 모든 일과 사물을 향해 이치가 제대로 실현되도록 양지를 확충하는 것을 치지라고 보고, 이를 통해 일과 사물을 바로잡는 것을 격물이라고 보아야 이러한 모순을 해결할 수 있다고 여겼다.

※ 주목 '격물치지'에 대한 왕수인의 정의다. '치지'는 양지를 확충하는 것으로, 마음속의 이치를 모든 일과 사물을 향해 실현하는 것이다. '격물'은 이러한 양지를 통해 일과 사물을 바로잡는 것을 의미한다. 앞선 주희의 정의와 구분하여 이해하도록 하자[문단1-1].

	격물	치지
주희	만물에 나아가 이치를 탐구	앎을 폭넓게 함
왕수인	확충한 양지로 일과 사물을 바로잡음	마음속 양지를 확충함

(나) 문단 1 조선의 효행 장려 방법

조선에서는 유교 윤리에 기초하여 **효**를 사회의 기본 가치로 삼고 이를 장려하여 사회의 기강을 바로잡으려 했다. 다만 백성들의 경우 유교 경서인 『효경』에 수록된 효에 관한 기본 원리들을 엄밀히 따르기보다 **사회적 관행**을 따르는 경향이 짙었다. 백성들의 실천 방식을 보면 그러한 관행은 유교적 질서를 세워 국가 체제를 확립하려는 통치자의 의도에 따라 실시된 **효행 포상제**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 맥락 읽기 통합 지문을 읽을 때에는 (나)를 읽으면서 의식적으로 (가)의 내용을 적절히 끌어올 수 있어야 한다. (나)에서는 (가)에서 언급되었던 '효의 이치'를 실천하는 '효행'을 장려하는 조선의 제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조선의 효행 포상제가 '주희, 왕수인'의 관점과 관련해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따져 보는 것이 중요하다.

▶ 조선은 '효'를 사회의 기본 가치로 삼았다. 통치자는 국가 체제 확립을 위해 효를 장려하는 '효행 포상제'를 실시했는데, 이는 유교적 질서로 국가 체제를 확립하려는 '통치자의 의도'와 닿아 있다.

※ 주목 이러한 '효행 포상제'는 실제 백성들의 '사회적 관행'에도 영향을 끼쳤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사회적 관행'은 정작 유교 윤리에 부합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어떤 점에서 부합하지 않았는지, 왜 효행 포상제가 그러한 영향을 끼쳤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이 글의 관건이다.

효행 포상제 ⇨ 사회적 관행
↳ 국가 차원 ↳ 백성 차원

(나) 문단 2 효행 포상제의 내용

1) 조선에서의 효행 포상 방식에는 정문, 복호, 상직 등이 있었다. **정문**은 효자의 집에 문을 세워 표창하는 것으로 가장 높은 단계의 포상이었으며, **복호**는 부역이나 조세를 면제하는 것, **상직**은 관직을 하사하는 것이었다. 정문은 복호나 상직이 수반될 수 있어서 실제로 그러한 경우가 많았다.

▶ 효행 포상제는 세 가지로 나뉜다. 그대로 세부 정보들을 챙기면 된다. 가장 높은 단계의 포상인 '정문'은 복호나 상직이 수반되는 경우가 많았다는 점도 기억해 두자.

정문	복호	상직
효자의 집에 문을 세워 표창	부역이나 조세 면제	관직 하사

2) 효행 포상제는 중국 한나라에서 효자를 추천받아 관리로 등용했던 제도인 **효렴제**에서 기원한 것으로, 관직에 눈먼 이들이 효자 행세를 하는 등의 **폐단**이 나타나자 중국에서는 오래전에 사라진 바 있다.

▶ 조선의 효행 포상제는 중국 한나라의 '효렴제'의 영향을 받았는데, 효렴제는 걸로 효행을 꾸며 내는 폐단이 발생해 중국에서는 오래전에 사라졌다. 따라서 효행 포상제는 그러한 폐단을 방지할 장치가 필요했을 것이다.

(나) 문단 3 효행 포상제의 실제

1) 조선에서는 **추천**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그러한 폐단을 막으려 했는데, 그 결과 남몰래 하는 효행보다는 **걸로 드러나는 효행**에만 포상이 주어지는 경향이 늘었다. 일상에서 부모를 잘 봉양하는 것보다 부모가 돌아가셨을 때에 무덤 옆에 움막을 짓고 삼 년간 애도하는 **시묘형 효행**에 대한 포상이 많아진 것도 이런 이유에서이다. 심지어 부모의 병환을 치료하기 위해 자식이 자신의 신체 일부를 약으로 쓰는 극단적인 **희생형 효행**에 대한 포상도 늘었다.

▶ 효렴제의 폐단을 방지하기 위해 '추천의 공정성'을 강조하였는데, 그러자 오히려 '걸로 드러나는 효행'만이 강조되는 또 다른 폐단이 나타났다.

2) 추후 추천에 적극적이지 않거나 잘못 추천하는 지방 관리에게 제재가 가해지자, 시묘형이나 희생형 효행에 대한 추천이 더 늘었고, 이런 식의 효행을 모범 사례로 생각하는 관행이 점차 굳어졌다.

▶ '관행이 점차 굳어졌다'라는 표현에 주목하자. 이렇게 '남몰래 하는 효행보다 걸로 드러나는 효행'이 중시되는 것이 당시 백성들이 따른 '사회적 관행'에 해당한다[문단1].

(나) 문단 4 효행 포상제에 대한 비판

- 1) 이러한 관행은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신체를 함부로 훼손해서는 안 되며 공경하는 마음이 곧 효라고 보는 『효경』의 내용과 배치된다.
 ➡ 새로운 내용은 아니다. 이러한 사회적 관행은 『효경』의 내용과 다르다고 하 였다[문단1].
- 2) 조선 후기에 왕수인이 제창한 양명학이 유입되면서 효행에 포상을 주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일정한 격식으로 규정된 효행은 형식적 효행일 뿐 참된 것이 아니며 **마음의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진정한 효행이 우러나온다는 것이다.
 ➡ '왕수인'이 등장하였으므로 (가)의 내용을 떠올려야겠다.
 ➡ 왕수인은 마음을 강조하며, 마음에 효의 이치와 효를 실천할 수 있는 능력 이 이미 갖추어져 있다고 보았다[(가)의 문단3]. 그러한 양명학의 입장에서는 '마음의 자율성'을 따르지 않은, 겉으로 드러나는 '형식적 효행'에 대해서 당연히 비판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 3) 이러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각종 효행 장려책은 통치 수단으로 전 략한 채 애초의 취지조차 잃어 갔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라지는 것은 없었다는 것이다.

<보기> 분석

<보기> 문단

- 1) ○ **갑** : 성인이 남긴 경서에는 만물의 이치는 물론 효의 기본 원리도 담겨 있다. 효를 사회의 기본 가치로 삼고 효행을 펴트리려면, 사람들이 경서에 파고들도록 권장해야 한다.
 ⚡ **백락 짚기** 이런 유형의 경우 '갑'의 견해를 읽고 '갑'에 대한 선지를 판단 하고, '을'의 견해를 읽고 '을'에 대한 선지를 판단하고, '병'의 견해를 읽고 '병'에 대한 선지를 판단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각 견해가 지문의 어떤 내용에 대 응하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관건이다.
 ➡ '갑'은 주자학의 관점과 상통한다. 경서에 효의 원리를 비롯한 만물의 이치 가 깃들었다는 점에서 개별 사물에 깃든 만물의 이치를 탐구해야 한다고 주장 하고 있다. 효행→ 실천에 앞서, 경서를 통한 효의 이치의 탐구→ 알]가 선행 되어야 한다는 '선지후행'의 관점에서 이해하면 된다[(가)의 문단1~2].
- 2) ○ **을** : 전염병과 자연재해로 혼란스러울수록 법을 엄격하게 적용 하고 효행을 장려해야 한다. 불안정한 사회에서는 민심이 이탈 하기 쉬우므로 백성의 효 의식이 충(忠)으로 이어지도록 해야 통치 기반이 마련될 수 있다.
 ∴ '을'은 사회의 기강을 잡아 통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효행을 장려 해야 한다는 관점을 취하고 있다. 이는 조선이 국가 체제를 확립하 기 위해 '효행 포상제'를 실시했던 것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 다[(나)의 문단1]. 선지에 제시된 '사회적 관행'은 사회의 기강을 잡 기 위한 효행 포상제에서 영향을 받아 형성된 것으로, 이는 '남몰래 하는 효행보다 겉으로 드러나는 효행만이 중시되는 것'에 해당한다 [(나)의 문단3]. 즉 이는 '공경하는 마음이 곧 효'라고 보는 『효경』의 내용과 배치된다[(나)의 문단4~1)]. 따라서 ③번 선지는 적절하지 않다.
- 3) ○ **병** : 부모 앞에 나아가고 나서야 비로소 효의 이치를 깨우치게 되 는 것은 아니다. 누구에게든 효를 행할 수 있는 힘이 내재되어

있으므로 자기 내면의 바른 소리에 따라 각자의 자리에서 효를 실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병'이 비판하는 대상은 주자학적 관점이다. 사물에 나아가야 만물의 이치 를 얻을 수 있다는 주자학의 관점을 비판한 '왕수인'의 관점에서 '병'의 관점 을 이해할 수 있다. '왕수인'은 마음에 효의 이치에 따라 실천할 수 있는 능력 [→ 효를 행할 수 있는 힘]인 '양지'가 이미 내재해 있으므로, 마음에서 자연스 럽게 우러나와 효를 실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가)의 문단3].

이 감

수록 지문 평가

눈 내리는 밤 막차를 기다리는 늦은 시간, 시골 어느 간이역의 풍경을 서정적으로 그린 소설이다. 저마다의 쓸쓸한 사연을 가진 사람들이, 기차를 기다리는 동안 역 대합실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며 저마다의 생각에 빠진다. 특정한 중심인물 없이 여러 인물의 이야기가 교차되어 나타난다. 박재구의 시 「사평역에서」에서 영감을 받아 창작된 소설로, 시와 함께 읽으면 좋겠다. 인물들을 바라보는 따뜻한 연민의 시선을 느껴 보자.

토막 1 현재, 사평역에서 사내와 농부에게 담배를 권하는 역장

역장은 난로의 뚜껑을 닫고 나서 한산도[→ 1970~1980년대에 시판되던 담배 이름. 비교적 저가의 담배였기에 소설의 서민적인 분위기와 어울리지는 느낌을 줌]를 꺼내 사내와 농부에게 권한다. 그들은 담배를 피우기 시작한다.

■ 역장은 역에서 잠시 머물렀다가 곧 기차를 타고 떠날 사람들에게 작은 인정을 베풀고 있다.

토막 2 과거, 사평역에 돌아오기 전까지의 사내 이야기

사내는 기차[→ 서울역에서 사평역으로 가는 기차]를 타기 전, 서울역 앞에서 그 굴비 한 두름을 샀었다. 언젠가 감방에서 허 씨가 흰쌀밥에 잘 구운 굴비를 먹고 싶다고 말한 적이 있었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사내가 허 씨와 함께 감옥살이를 했음]. 비록 허 씨 자신은 먹을 수 없겠지만, 홀로 산다는 허 씨의 칠순 노모에게 빈손으로 찾아갈 수는 없을 것이라는 생각에 역 광장의 행상꾼에게서 한 두름을 샀다. 그리고 밤 내내 완행열차를 타고 이날 새벽 사평역에서 내려 허 씨가 일러 준 대로 그 조그마한 산골 마을을 찾아들었던 것이다.

■ 교도소에서 출감한 사내는 교도소에서 함께 지냈던 허 씨의 부탁으로 그의 모친을 방문하러 사평에 왔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허 씨의 노모는 이미 만날 수가 없었다. 죽어 묻힌 지가 오년도 넘었다고 했다. 노모가 죽은 이듬해, 허 씨의 형도 식솔들을 데리고 훌훌 마을을 떴고, 그 후 그들의 소식은 영영 끊어졌다는 거였다[→ 허 씨는 자기 가족들에게 일어난 일을 모르고 있었음].

그 말을 전해 듣는 순간 사내는 사지의 힘이 일시에 빠져나가는 듯한 허탈감을 맛보았다[→ 망연자실해 하는 사내의 모습]. 어느덧 초로에 접어든 허 씨의 쓸쓸한 모습이 눈앞에 선히 떠올랐다[→ 교도소에서 오래 복역하는 동안 나이가 들었다는 말]. 노모의 죽음조차 모르고 비좁은 벽돌담 안에 갇힌 채 다만 다른 사람들의 것일 따름인 그 쓸쓸한 계절들을 맞고 보내다가[→ 교도소 안의 삶에서는 계절의 변화가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함], 어느 날인가는 푸른 옷[→ 복역 중인 죄수가 입는 옷]에 싸여 죽음을 맞이할 한 늙고 병든 무기수의 얼굴이 사내의 발길을 차마 돌릴 수 없도록 만드는 거였다. 등 뒤에 두고 돌아서려니, 사내는 그 마을이 바로 자기의 고향인 듯한 느낌이 들었다. 그의 고향은 본디 이북이었지만 피난 통에 가족들과 헤어져 집도 부모도 없이 떠돌아다니며 커 왔던 것이었다.

■ 사내는 고향과 가족을 오래전에 잃은 실향민이다. 무기수 허 씨는 복역하는 동안 가족과 단절되었다. 사내는 허 씨의 처지에 연민을 느끼고, 허 씨의 고향을 자신의 잃어버린 고향처럼 느끼고 있다.

하염없이 눈송이만 펄펄 쏟아지는 산길을 걸어 나오며 사내는 자꾸만 발을 헛디뎠다. 문득 되돌아보면 멀리 산골 초가의 굴뚝에선 저녁 짙는 연기가 은은히 피어오르고 있었다. 눈 내리는 산자락에 고요히 묻혀 가는 저녁 무렵의 산골 풍경은 눈물겹도록 평화스러워 보였다.

이보쇼, 허 씨. 당신이나 나는 이제 매양 마찬가지로, 피차 어디 찾아갈 곳 하나 없어졌으니 말이오. 하지만 그래도 당신은 나보다 야 낫소. 그 속에 있으면 애써 고향을 찾아 나설 수도, 또 그래야 할 필요도 없을 테니까 말이외다. 허허허. 그나저나 난 도대체 이제부터 어디로 가야 한다는 말이오.

사내는 휘적휘적 눈길을 헤쳐 내려오며 몇 번이나 그렇게 냇두리를 했다[→ 삶의 정처를 찾지 못해 방황하고 있는 사내의 모습].

■ 고향이 이북인 자신과, 고향에 노모를 비롯한 가족들이 더 이상 살고 있지 않은 허 씨 모두 찾아갈 고향을 잃었다는 사내의 인식이 드러난다. 하지만 사내는 이제부터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자신보다 교도소에 갇혀 있어 아무 데도 갈 수 없는 허 씨의 처지가 낫다고 여기고 있다.

토막 3 현재, 지명 수배자 포스터를 들여다보고 있는 청년을 발견하고 격려해 주는 역장

역장은 시계를 본다. 아홉 시 반. 이거 너무 늦는걸[→ 기차가 연착하여 그것을 탈 사람들이 대합실에서 기다리고 있는 상황]. 그러다가 역장은 저만치 창가에서 서성이고 있는 청년을 새삼 발견한다.

청년은 벽에 붙은 지명 수배자 포스터를 들여다보고 있는 참이다. 포스터엔 스무 명 남짓, 지극히 평범하게 생긴 한국 사람들의 얼굴이 적혀져 있고 그 밑에 성명, 나이, 범행 내용, 인상착의 따위가 기록되어 있다. 그중 몇은 ‘검거’라고 쓰인 붉은 도장이 쿵쿵 박혀져 있다. 수배자들의 사진 가운데엔 대학생이 아는 얼굴도 하나 끼여 있다. 그는 청년의 선배이다. 시위를 주동한 혐의로 선배는 몇 달 전부터 수배되어 있는 중이다. 청년은 지금 그 선배의 사진과 무슨 얘기라도 나누는 양 골똘히 마주 대하고 있다. 바로 그때 역장이 청년을 불렀으므로 청년은 적이 놀란 모양이다.

■ 청년이 자신의 선배가 실린 지명 수배자 포스터를 ‘무슨 얘기라도 나누는 양 골똘히’ 보고 있는 것에서, 청년과 그 선배가 어느 정도의 친분 혹은 관련이 있음을 추측해 볼 수 있다.

(중략)

역장은 청년을 새삼 믿음직스러운 듯 바라본다. 역장은 그를 기억해 낼 수 있다. 어릴 때부터 남달리 성실하고 착한 학생 같았었다. 어느 애들과는 다르게 생각이 많아 났고 늘 손에 책이 들려져 있는 것도 대견스러웠다. 그러길래 청년이 인근 마을에선 유일하게 도회지의 국립 대학에 합격했다는 소문을 들었을 때, 그게 우연이 아니라고 여겼던 것이다[→ 청년의 예전 모습에 대한 역장의 기억].

“아쁜, 공부 열심히 해서 성공해야지. 뒷바라지하시느라 춘구석에서 뼈 빠지게 고생하시는 부모님 호강도 시켜 드리고, 고향에 좋은

일도 많이 해야 하네. 알겠는가.”[→ 청년을 향한 역장의 덕담]

“예…….”

역장이 어깨를 툭툭 두드리 주며 격려했고, 청년은 고개를 떨군 채 희미한 대답을 한다.

▶ 청년을 알아보고 격려하는 역장의 말에 청년은 대답조차 잘 하지 못하는 위축된 모습을 보이는데, 이를 통해 청년은 역장의 격려에 부응할 수 없는 처지임을 짐작할 수 있다.

토막 4 청년의 과거 회상과 고향 집에서 있었던 과거의 일

불현듯 청년의 뇌리엔 아버지의 얼굴이 떠오른다. 소나무 등걸처럼 투부룩한 아버지의 손. 그 손으로 아버지는 평생을 눈발만 일구며 살아왔다. 아버지의 꿈은 판사 아들을 두는 거였다. 그렇게만 된다면 내일 죽어도 한이 없노라고, 젊은 시절을 남의 집 머슴으로 전전했던 가난한 아버지는 대학생이 된 아들 앞에서 주먹을 불끈 쥐어 보이곤 하던 거였다.

청년예겐 동생이 다섯이나 있었다. 모두가 국민학교만 겨우 마쳤거나 아직 다니고 있는 중이었다. 청년은 그의 집의 유일한 희망이었고, 어김없이 찾아올 밝아 오는 새벽이었다[→ 청년의 가족들이 청년에 대해 품고 있는 기대]. 그런 부모와 형제들 앞에서 끝내 퇴학당했다는 말을 꺼낼 수가 없었다. 언젠가 여름에 자기도 그냥 집에 내려와 농사나 짓는 게 어떻겠느냐고 한마디 건넸다가 그만 노발대발한 아버지에게 용서를 비느라 혼쫓이 난 적도 있었다. 결국 아무런 얘기[→ 대학에서 퇴학당했다는 얘기]도 꺼내 보지 못하고 이젠 누구 하나 찾아갈 사람도 없는 그 거대한 도시를 향해 집을 나섰을 때 청년은 하마터면 울음을 터뜨릴 뻔 하였다[→ 삶의 방향을 상실한 청년].

자, 이거 받으라이. 느그 아버지가 준 돈은 책값하고 하숙비 빼면 니 쓸 것도 부족하꺼이다. 괜찮다이. 내, 그동안 몰래 너 오면 줄라고 모아 둔 돈이니까. 달걀도 모았다가 팔고 동네 밭일 해 주고 품삯 받은 거[→ 어머니가 어렵게 모은 돈]이다. 아무쪼록 애겨 쓰면서, 공부도 종재만 항상 몸을 살피야 쓴다이[→ 아들의 건강을 염려하는 어머니].

동구 밖까지 따라 나온 어머니는 꾸깃꾸깃 때에 전 돈을 억지로 손에 쥐여 주었다. 어머니와 동생들은 마른버짐이 허영게 핀 얼굴로 그가 고개를 끄박 넘어설 때까지 손을 흔들고 있었다.

▶ 1970년대부터 1980년대에 이르기까지 대학생들의 시위는 대부분 군부 독재에 대한 민주화 투쟁의 일환이었다. 이런 시대 배경과 함께 작품[→ 이 작품은 1983년 발표작이다.]에 제시된 정황상 청년은 민주화 운동과 관련한 일로 다니던 대학에서 퇴학당했음을 짐작해 볼 수 있다.

▶ ‘마른버짐’은 대개 영양 결핍으로 인해 생기는 피부병으로, 청년의 가족들이 가난에 시달리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청년은 자신이 대학을 졸업하여 집안을 일으켜 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는 가족들에게 실망감을 안겨 줄까 봐 퇴학당한 사실을 알릴 수 없는 것이다.

[27~30] 고전시가

(나) 「희설」

— 홍계영 —

— 수록 지문 평가

「희설(기쁜 눈, 또는 눈 내리는 것을 즐거워한다는 뜻)은 눈 오는 날의 아름다운 경치를 묘사한 작품이다. 강호 자연의 아름다움을 그려 내는 다른 가사와는 달리 서울 성내와 인근의 경치를 노래하고 있는 한편, 제목이 구체적이어서 작품의 초점이 뚜렷하다는 특징을 갖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풍설(風雪)이 잠깐 자고 마당이 고요커늘

창문을 활짝 열고 병든 눈[→ 병을 앓고 있는 처지임이 드러남] 높이 드니
만 리(萬里) 건곤(乾坤)에 무한한 청산이

엇그제 소년(少年)[→ 푸른 산을 청춘의 소년에 비유]에서 백두옹(白頭翁)
[→ 눈 덮인 산을 머리털이 허영게 센 노인에게 비유]이 되었구나

▶ 눈이 잠깐 몇자 방에서 눈 쌓인 풍경을 바라보는 화자의 모습이 드러난다. 창을 ‘활짝 열고’ 눈을 ‘높이 드’는 것은 비록 병든 몸이지만 먼 산에 눈이 쌓인 경치를 마음껏 즐기려는 화자의 모습을 떠올리게 한다. 눈이 오기 전에 푸르게 보였던 산들이 눈이 쌓여 하얗게 변한 것을 보고 ‘엇그제’까지 ‘소년’이었는데 머리가 하얗게 센 노인이 되었다고 표현하고 있다.

남산의 푸른 기운 쓸린 듯하였으니

삼각산[→ 북한산의 다른 이름] 푸른빛은 뉘라서 감추었나

아미산 검각의 파촉(巴蜀, 험한 산지로 둘러싸인 지역으로, 가는 길목에 검각이 있음)이 어디메오

설산(雪山) 진면목을 여기서 다 보노라

▶ 창을 통해 보이는 ‘남산’과 ‘삼각산’에 눈이 쌓인 모습에 대한 감탄이 드러난다. 눈 쌓인 산을 보니 ‘푸른 기운’이 쓸려 나간 것 같고 누가 감춘 듯이 ‘푸른빛’이 사라져 온통 희게만 보인다는 것이다. 이전과 확연히 달라진 산의 모습을 보고 고조된 흥취는, 험한 산으로 둘러싸였다는 먼 ‘파촉’ 땅에 갈 필요 없이 화자가 있는 방 안에서 ‘설산 진면목’을 다 볼 수 있다는 감탄에 이른다.

어와 조화옹이 변화도 그지없다

억만창생을 사치케 한단 말가

집마다 구슬 장식이요 섬돌마다 옥 계단이로다

▶ ‘집과 ‘섬돌’에 쌓여 얼어붙은 눈은 ‘구슬’과 ‘옥’에 빗대어, 얼음에 덮인 집의 모습을 보석으로 빛나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다. 조물주가 ‘억만창생’을 사치케 한다는 말은, 어느 집이나 내려 쌓인 눈을 보고 모든 백성이 값비싼 보석으로 사치를 누리게 되었다고 표현한 것이다.

내 집도 찬란하니 거처는 좋다마는

선비에게 과분하니 심중(心中)이 불안하다

집과 거리마다 경요(瓊瑤, 아름다운 구슬)가 낭자하되

줍지도 아니하니 풍속도 좋을시고

▶ 눈을 귀한 보배에 비유하는 것이 계속되고 있다. ‘내 집’을 구슬과 옥으로 장식한 거처로 여기며 ‘선비’인 자신에게는 과분하여 ‘불안’하다고 하거나, ‘집과 거리’에 쌓인 눈을 아름다운 구슬에 빗대며 길에 떨어진 그 귀한 보석을 함부로 주워 가지 않는 풍속이 아름답다고 표현하고 있다. 눈 쌓인 아름다운 풍경을 즐기면서도 이를 통해 선비의 소박한 삶이나 선비로서 바람직하게 여기는 풍속을 떠올리는 모습을 엿볼 수 있다.

수레바퀴 흰 피는 쌍으로 가로지르고

말발굽 은잔(銀盞)은 날날이 뚜렷하니

장인(匠人)이 만들었나 천하에 기이하다

▶ '수레바퀴 흰 띠'는 눈 위로 수레바퀴가 지나가며 길게 남긴 흔적이고 '말발굽 은잔'은 말이 지나가며 움푹 팬 말굽 자국이다. 일상의 사소한 대상까지 섬세하게 포착하여 아름답게 표현하고 있다.

(중략)

동창(東窓)이 환하여 태양이 솟아오르니

집집마다 처마에 빗소리는 무슨 일고

▶ 아침 해가 뜨자 지붕 위에 쌓였던 눈이 녹아내리는 상황을 '처마'에서 '빗소리'가 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다.

내 한마디 가져다가 눈에게 이르노니

네 시절 얼마나 가리 삼동(三冬, 겨울의 석달)이 거의로다

▶ 눈이 녹는 것에 대한 아쉬움에 눈에게 말을 건네고 있다. '삼동이 거의로다'에는 겨울이 끝나가서 눈을 더 이상 즐기지 못하게 되는 상황에 대한 안타까움이 담겨 있다.

봄 냇가의 도리화는 천시(天時, 때를 따라서 돌아가는 자연 현상)를 슬퍼하고

추풍(秋風)의 흰 이슬은 아침을 원망하네

▶ 봄 한철 아름답던 '도리화'가 봄이 가면 저 버리는 것을 '천시를 슬퍼'한다고 표현하고, 가을밤에 내린 '흰 이슬'이 아침이 되면 사라지는 것을 '아침을 원망'한다고 표현하고 있다. '도리화'와 '흰 이슬'은 아름답지만 한시적으로만 존재하다가 소멸하는 존재라 할 수 있다.

불의 신(神)이 대로하여 불 수레를 바삐 모니

이글거리는 천지가 큰 화로에 들었어라

수많은 산과 골짜기서 네 얼굴 보려 한들 어디 가 얻겠는가

▶ 계절이 바뀌어 날이 더워지는 것→ 또는 태양이 떠올라 한낮이 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음]을 '불의 신'의 '불 수레'로 인해 '이글거리는 천지가 큰 화로에' 든 것 같다고 표현하고 있고, 그로 인해 눈이 녹아 버려서 더 이상 눈을 찾아볼 수 없게 된 것에 대한 아쉬움을 '네 얼굴 보려 한들 어디 가 얻겠는가'라는 탄식을 통해 드러내고 있다.

인간 만사 이 같음을 탄식한다

▶ '도리화', '흰 이슬', '눈'과 같이 한시적으로 존재하는 자연물과 유한한 인간의 삶을 결부하여 안타까움을 드러내고 있다. 세상만사는 변화하고 때가 되면 사라지고 만다는 것이다.

앞산을 바라보니 눈 견디는 저 소나무

사시(四時)에 울울(鬱鬱)하여 천고에 푸르르니

초목 만물 중에 너 같은 이 또 뉘런고

▶ 시선을 '앞산'의 '소나무'로 옮겨 사시사철 푸른 '소나무'의 불변성에 대한 선망을 드러내고 있다. '너 같은 이 또 뉘런고'에서는 소나무에 대한 칭송의 태도가 부각된다.

세밑[→ 한 해가 끝날 무렵. 여기서는 한겨울의 의미] 약속은 푸른 솔에 의탁하고

맑은 시(詩) 높은 곡조는 백설에 기대노라

▶ '세밑 약속'은 한겨울에도 변함없이 푸른빛을 잃지 않겠다는 약속으로 이해할 수 있다. 화자는 소나무의 불변성을 예찬하는 한편, '맑은 시 높은 곡조'는 '백설에 기대'겠다고 하여 초점을 다시 눈에게로 돌리면서 시상을 마무리하고 있다. 맑은 시상을 불러일으키고 한 곡조의 고상한 노래를 떠오르게 하는 흰 눈의 아름다움에 주목하면서, 유한하기 때문에 더욱 두드러지는 사물의 아름다움을 부각하는 것이다.

이 감